

##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향후 전망

미 연준 등 금융감독당국은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0개 은행이 총 746억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은 향후 6개월 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되 동 기간 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로 은행권의 자본금 확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부실자산 처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1. 주요 내용

- 미 연준 등 금융감독당국은 5. 7일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10개 은행이 총 746억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정식명칭은 자본금 평가 프로그램(The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SCAP)이며 연준(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참여

- 19개 은행은 2008년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10.7%, 보통주 중심 기본자본비율 5.3%로 금융감독당국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자본금 확충이 필요

\*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19개 은행은 2009~10년중 총 5,992억달러의 손실이 예상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십억달러, %)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규 모	비 율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er 1 Capital<sup>2)</sup> (기본자본)</li> </ul>	836.7	10.7
Tier 1 Common Capital <sup>3)</sup>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	412.5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가중자산</li> </ul>	7,814.8	
<hr/>		
손실 추정치(2009~10년중,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	규 모	손실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손실</li> </ul>	599.2	
선순위 모기지 대출	102.3	8.8
후순위 모기지 대출	83.2	13.8
상업 및 산업용 대출	60.1	6.1
상업용 부동산 대출	53.0	8.5
신용카드 대출	82.4	22.5
거래 및 상대방 신용리스크 손실	99.3	-
기 타	118.9	-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말 기준) 필요 자본금 확충 규모(비관적 시나리오 가정), (A)</li> </ul>	185.0	
(-) 2009. 1/4분기중 자본금 유치 실적(B)	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필요 자본금 확충 규모<sup>4)</sup>(A-B)</li> </ul>	74.6	

주: 1) 위험가중자산 대비

2) 자본금(보통주, 영구적 비누적적 우선주)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 이익잉여금 +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 자본조정항목 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신종자본증권

3) 기본자본에서 일부 영구적 우선주 및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을 제외

4) 자본금 확충은 Tier 1 Common Capital(혹은 contingent Tier 1 Common Capital)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자료: FRB

○ 은행별로는 Bank of America(339억달러), Wells Fargo(137억달러), GMAC(115억달러), Citigroup(55억달러) 등의 순임

— 반면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등 9개 은행은 자본확충이 불필요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십억달러)

	Tier 1 Capital (Tier 1 Common)	위험가중 자산	추정손실	자본금확충 규모	TARP 자금지원 <sup>1)</sup>
Bank of America	173.2 (74.5)	1,633.8	136.6	<b>33.9</b>	45.0
Wells Fargo	86.4 (33.9)	1,082.3	86.1	<b>13.7</b>	25.0
GMAC	17.4 (11.1)	172.7	9.2	<b>11.5</b>	5.0
Citigroup	118.8 (22.9)	996.2	104.7	<b>5.5</b>	45.0
Regions Financial	12.1 ( 7.6)	116.3	9.2	<b>2.5</b>	3.5
SunTrust Banks	17.6 ( 9.4)	162.0	11.8	<b>2.2</b>	4.9
Morgan Stanley	47.2 (17.8)	310.6	19.7	<b>1.8</b>	10.0
Keycorp	11.6 ( 6.0)	106.7	6.7	<b>1.8</b>	2.5
Fifth Third Bancorp	11.9 ( 4.9)	112.6	9.1	<b>1.1</b>	3.4
PNC Financial Services	24.1 (11.7)	250.9	18.8	<b>0.6</b>	7.6
JPMorgan Chase	136.2 (87.0)	1,337.5	97.4	0.0	25.0
Goldman Sachs	55.9 (34.4)	444.8	17.8	0.0	10.0
MetLife	30.1 (27.8)	326.4	9.6	0.0	0.0
US Bancorp	24.4 (11.8)	230.6	15.7	0.0	6.6
Bank of NY Mellon	15.4 (11.0)	115.8	5.4	0.0	3.0
State Street	14.1 (10.8)	69.6	8.2	0.0	2.0
Capital One Financial	16.8 (12.0)	131.8	13.4	0.0	3.6
BB&T	13.4 ( 7.8)	109.8	8.7	0.0	3.1
American Express	10.1 (10.1)	104.4	11.2	0.0	3.4
합 계	836.7 (412.5)	7,814.8	599.2	<b>74.6</b>	208.6

주: 1) 우선주 매입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금액  
자료: FRB, Bloomberg

< 참 고 >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 대상 : 2008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달러를 상회하는 19개 은행지주회사\* (bank holding company)

\* 미국 은행산업 총 자산의 2/3, 총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 25일부터 기본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등 2가지 가정 하에서 테스트 실시

\*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은행의 평균 대출 손실률은 9.1%(2년간 누적)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

시나리오별 전망

(%)

	기본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2009	2010	2009	2010
실질 GDP 성장률	-2.0	2.1	-3.3	0.5
실업률	8.4	8.8	8.9	10.3
주택가격 상승률	-14.0	-4.0	-22.0	-7.0
선순위 모기지 손실률 <sup>1)</sup>	5.0 ~	6.0	7.0 ~	8.5
후순위 모기지 손실률 <sup>1)</sup>	9.0 ~	12.0	12.0 ~	16.0
상업 및 산업용 대출 손실률 <sup>1)</sup>	3.0 ~	4.0	5.0 ~	8.0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률 <sup>1)</sup>	5.0 ~	7.5	9.0 ~	12.0
신용카드 손실률 <sup>1)</sup>	12.0 ~	17.0	18.0 ~	20.0
기타 소비자대출 손실률 <sup>1)</sup>	4.0 ~	6.0	8.0 ~	12.0
기 타 <sup>1)</sup>	2.0 ~	4.0	4.0 ~	10.0

주: 1) 2년간 누적 손실률      자료: FRB

- 평가 기준으로는 기본자본(Tier 1 Capital)과 더불어 특히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Tier 1 Common Capital)을 중심 지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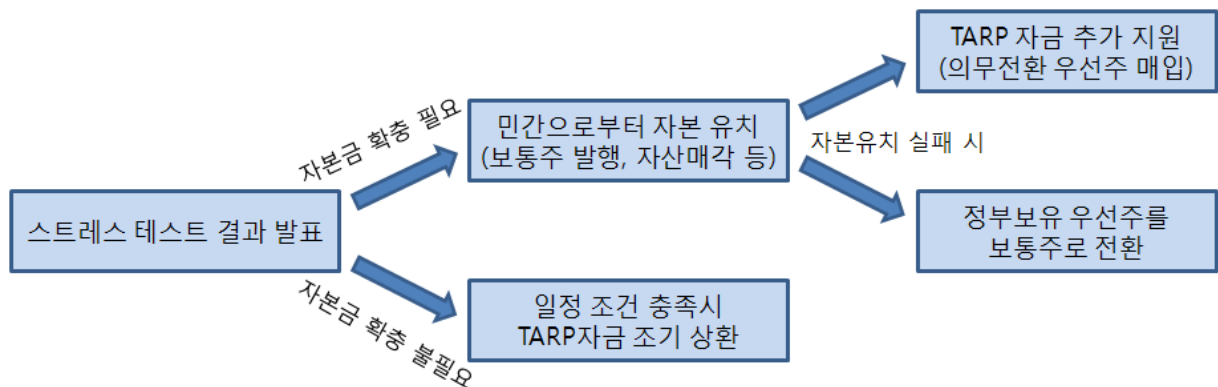
- 개별 은행지주회사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10년말까지 최소 6%의 기본자본비율(Tier 1 risk-based ratio) 및 최소 4%의 보통주 중심 기본자본비율(Tier 1 Common risk-based ratio)을 충족해야 됨

- 이는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이 위기시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인

## 2. 금융기관의 대응

-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은 6개월 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되 동 기간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음
  - FDIC의 자문을 받아 30일안에(6. 8일까지) 민간자본 유치 계획안을 수립하고 6개월내에(11. 8일까지) 이를 실행해야 함
    - 동 계획안에는 보통주 발행, 자산 매각,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배당 제한 등의 자본금 확충 계획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자금의 상환 계획도 포함
  -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지원
    - 정부는 의무전환 우선주(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매입을 통해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2%까지 자본금 확충을 지원
    - 또한 정부보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주요 평가지표인 보통주 중심 기본자본비율(Tier 1 Common risk-based ratio)의 상향조정을 유도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



□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은행들은 TARP 자금의 조기 상환\*이 가능

\*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등은 이미 조기 상환계획을 발표

- 전제조건으로 TARP 자금의 상환 후에도 자기자본이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FDIC의 보증 없이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 자본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대부분의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직후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금 조달 계획을 발표

- Wells Fargo와 Morgan Stanley는 5. 8일 주식공모 등을 통해 각각 75억달러와 80억달러의 자금을 이미 조달
- Bank of America는 보통주 발행과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사업부문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Citigroup도 이미 발표했던 민간보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규모를 확대(275억달러 → 330억달러)할 계획
- 그러나 115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GMAC는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GM과 Cerberus Capital(Chrysler의 대주주)의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3. 향후 전망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로 은행권의 자본금 확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은행의 자본금 확충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스트의 신뢰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

— WSJ은 FRB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전에 해당 은행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반론을 수용함에 따라 자본금 확충 규모가 발표 직전에 대폭 삭감되었다고 보도

— Paul Krugman, Nuriel Roubini 교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기초하고 있는데다 각종 대출 손실률도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비판

— 또한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시가평가(mark to market) 회계기준 완화\*로 부실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

\* MBS 등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평가 대신 은행권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

○ 또한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가 신속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

— 미 재무부는 3. 23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공공·민간투자 프로그램\*(PPIP: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

\* 정부 출연자금(TARP 자금중 750억~1,000억달러)과 민간 투자자금으로 펀드를 설립하여 우선 총 5,000억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 향후 최대 1조달러까지 매입규모를 확대

□ 주요 은행들이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은행의 부분 국유화\*가 진행되거나 의회에 추가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도 상존

\* 정부가 은행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경영권에는 미관여

○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한 은행들은 보통주 중심 기본자본(Tier 1 Common)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부 대형은행들이 부분 국유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Citigroup은 2. 27일 정부보유 우선주 450억달러중 250억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Citigroup 지분율은 34%에 달함

○ 또한 은행 자본금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잔여 TARP 자금은 현재 259억달러에 불과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추가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

— 반면,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일부 은행들이 TARP 자금을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

**TARP 자금(총 7,000억달러) 배정 및 지원 현황**

(십억달러)

		최대 배정액	지원액
금융기관 지원	자본확충 지원	250.0	197.9
	공공·민간투자프로그램	100.0	0.0
	Citigroup, BOA 추가 지원	40.0	40.0
	AIG 지원	70.0	69.8
	Citigroup, BOA 손실보증	12.5	0.0
소비자 및 기업대출 촉진	TALF 지원	100.0	20.0
	중소기업 대출 지원	15.0	0.0
자동차산업 지원	자동차업체 지원	31.6	30.6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5.0	5.0
주택소유자 지원	모기지 조정	50.0	15.1
합 계		674.1	378.4
잔여 TARP 자금		25.9	321.6

자료: 미 재무부(2009. 5. 7일 기준)